

‘세월호 참사’ 단원고 250명 명예 졸업식

5년 만에 품에 안은 졸업장... 유족들 눈물바다

학생들 한명씩 호명예
침묵→흐느낌→오열로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단원고등학교장.”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이 12일 자녀의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올랐다가 2014년 4월 16일 예상치 못한 참사로 희생된 지 5년 만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3년 전 자녀가 받았을 졸업장이다.

자녀 대신 받아 든 꽃다발과 졸업장, 앨범을 뽐내며 보따리 위로 뚝뚝 눈물이 흘러 바로 씻어 들었다.

당시 세월호 침몰 소식에 가슴을 졸이며 숨가빠 달려왔던 안산 단원고 본관 4층 단원관(강당)은 학부모 집결지 겸 대기실이였다. 세월이 흘러 학부모는 유족으로, 이곳은 통곡의 졸업식이 됐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날 명예 졸업식이 시작되고 양동영 단원고 교장이 250명의 희생 학생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



12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명예 졸업식에 참석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2학년 10반 장혜원.”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던 졸업식은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오열로 눈물바다가 됐다.

재학생 20여 명이 ‘눈물기도’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하면서 선배들을 기린 데 이어 희생 학생들의 재학시절 후배였던 10회 졸업생 이희운(2017년 졸업)씨가 ‘졸업생 편지’를 낭독했다. 안산 단원고는 애초 2016년 1월 세월

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졸업에 맞춰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도 준비했었다.

하지만 희생 학생들이 제적 처리되고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남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요청으로 졸업식을 늦췄다가 이번에 명예 졸업식을 열게 됐다.

졸업식장 중앙을 채운 250명(미수습 2명 포함)의 희생 학생 좌석에는 얼굴 사진이 새겨진 학생증과 황색 보따리, 꽃다발이 놓였다.

졸업식장 희생 학생 좌석은 절반 정도

만 채워졌다. 전체 250명 가운데 120명 정도만 참석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졸업식 직전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아이들이 살아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위로나 위안이 안 된다. 많지 않은 부모가 졸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 졸업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뉴스



광주 9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고운건설 이권수 대표이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가 12일 9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맞이했다. 광주 90호 회원의 주인공은 고운건설 이권수 대표이사이다.

이날 이권수 대표이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약정,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를 받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

하게 됐다. 향후 이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권수 대표이사는 “새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나눔실천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광주병원, 북구청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광주병원 신동철(대표원장·가운데)은 12일 북구청을 방문해 병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사랑의 후원금 3백여만원을 지역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문인(왼쪽 세번째)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전남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와 공명선거 다짐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1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홍동기 검사가 참석해 조합장선거 유의사항과 무무일 검찰청장의 불

법선거 엄정 대응방침에 대하여 알리며 금품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검사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에 걸쳐 관내 146개 농·축협 조합원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부터 타시도 검사국과 교차해 실시하는 3차 점검을 통해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나서고 있다. dools18309@srb.co.kr



이창호 전 남구의원 무진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이창호 전 광주 남구원이 제15대 무진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12일 오후 광주 남구 방림동 무진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직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창호 이사장은 “간소한 취임식으로 비용을 절약해 연말이웃돕기에 사용하겠다”면서 “조합원의 이익도모는 물론 무진새마

을금고가 제2금융권으로 굳건하고 탄탄하게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진새마을금고는 봉선동과 방림동 등 남구지역에서 시민들의 예금과 대출로 지역사회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창호 이사장은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와 무진새마을금고 이·감사를 거쳤다. 이영주기자 jo6605@srb.co.kr

“소통이 칭찬으로 이어질 때, 공직생활 가장 큰 보람”

28년차 베테랑 남구 건설과 김광주 주무관 대통령상 수상

“현장에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다’며 미소 짓는 주민들을 만나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지난 1일 주민 보호와 헌신적인 봉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광주(48·사진오른쪽) 광주 남구 주무관은 이같이 소감을 말했다. 현재 건설과 도로팀장을 맡고 있는 김 주무관은 1992년 공직사회에 입문, 28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왔다.

도목직 베테랑으로서 굿일을 도맡아 온 그는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쓰레기가 매립된 유안근린공원 부지를 해당 사업에 포함, 생활쓰레기를 전면 처리해 쾌적한 근린공원을 조성했다. 친환경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월동 삼익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약 40건 이상의 생활도로 개설도 추진해 왔다. 또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월초교 주변 등 5곳에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2017년 9월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입암마을 진출입로 개선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LH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이들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인을 끈질기게 설득해 저소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김 주무관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 모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과 밀접한 일을 맡고 있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지적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서운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민들도 사업이 끝나면 동네가 살기 좋아졌다며 칭찬해주실 때가 많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청하고 설득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서충성기자 zorba85@srb.co.kr

무등 게시판 Tel: 606 7725 e-mail: mdlbo@srb.co.kr Fax: 606 7796~7

결혼 ▲웅선우·정영유씨 장남 소승군, 최영록(통일화물 대표이사)·장명자씨 장녀 수연양=16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사)한국 숯사탕 총연합회장회(중앙총재 이송남) 새해 인사 및 사업 보고회= 21일(목) 오전 11시 수자타(증심사 입구)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470번지 2층 (062) 521-2332 ▲지역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보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지방보훈청 재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부 재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지원. 132, 1577-8339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여성외전화 상담센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차별·여성문제 상담 및 법률·의료·주거지원 등 상담,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062-363-0442~3), 인터넷 상담 www.gjhotline.or.kr

모집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여성보호서비스협찬단(지후 이준) 단원=

대상·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연습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사립소년소녀합창단실. 문의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부음 ▲조희범씨 별세, 김낙곤(광주MBC 국장)·성근(전 한국계임산업협회 사무국장)·해자·봉숙·미숙·혜숙(진성여중 교사)씨 모친상, 박병선(선양해운대표이사)·한은(전 여수공고 교사)·강성담·조영성(매산중 교사)·이윤화(신평택발전소 팀장)씨 장모상=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4일(목) 오전 9시. 062-220-3352

이승욱 구례군의원,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이승욱구례군의원은 이승욱 의원이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1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기초의원 2,926명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공모자 중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자 33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남 기초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공약이 체계적으로 실천가능한지 꼼꼼히 심사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7대 구례군의회 비례대표의

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후반기 부의장을 맡았으며 2년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승욱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구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학위수여식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원장·학장 전제열) 학위수여식이 12일 오전 대학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118명과 의과대학 간호학과 91명 등 총 209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재형 총장직무대리는 축사에서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는 조선대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에 설립된 사립 의과대학”이라며 “그동안 졸업생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세계 의료발전에 눈부신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본사소식 ▲임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학 "공보이사" ▲김지현 "재무이사" ▲박철 "교육이사" ▲하재욱 "법제이사"